

# 생산자원의 구성과 그 변화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

정 명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은 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의 유기적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3권 293페이지)

생산이 진행되자면 반드시 일정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되는 모든 요소들을 말한다. 그가운데서 생산자원은 생산과정에서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자원이다.

생산자원은 로력자원, 물질자원, 지식자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로력자원은 로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적자원을 의미한다.

물질자원은 물질적형태로 존재하는 생산수단을 의미한다. 물질자원은 그 용도에 따라 로동수단(기계설비 등)과 로동대상(원료, 자재 등)으로 구분되며 그 형성원천에 따라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으로 구분된다. 자연에 의하여 주어진 자원(나무, 석탄, 원유, 광석 등)이 자연자원이며 사람의 로동의 산물로서 생산수단으로 쓰이는 자원(세멘트, 강재, 천 등)이 인공자원이다.

지식자원은 로력자원, 물질자원과 구별되는 고유한 자원으로서 사람의 두뇌속에 존재하거나 도서, 기억매체, 설계문건 등에 들어있는 지식이다.

생산자원이 생산적으로 소비된 결과 새로운 생산물이 나오며 소비된 생산자원은 새로운 생산물의 용량구성을 이룬다. 다시말하여 로동력이 소비되어 생산물의 로동용량을 이루고 로동수단 또는 고정재산이 소비되어 고정재산용량을, 원자재 등 로동대상이 소비되어 물자용량을 이루며 지식자원이 생산과정에 활용되어 생산물의 지식용량, 과학용량을 이룬다.

생산과정에 로력자원이 어느 정도 소비되었는가 하는것은 생산물의 로동용량으로 나타나고 물질자원가운데서 로동수단으로 기능하는것이 생산물의 고정재산용량으로 대상화되며 로동대상으로 기능하는것이 생산물의 물자용량으로 대상화된다. 원료, 자재와 같은 로동대상으로 쓰이는 물질자원은 생산물의 현물소재적내용을 이룬다. 지식자원은 생산물의 지식용량, 과학용량으로 대상화된다.

물질적생산에서 생산자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먼저 생산자원은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기능한다.

물질적생산이 진행되자면 일정한 생산자원이 준비되어야 한다. 생산이 생산자원의 소비과정인것만큼 생산자원이 있어야 물질적생산이 진행될수 있다.

로력자원과 물질자원은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원이다. 현대적생산에서는 물론 인류사회의 려명기에도 물질적생산의 필수적조건으로서 로력자원과 로동도구, 원자재 등 로동대상이 요구되였다.

로동수단과 지식 등 생산자원은 사회경제발전과정에 생산자원으로 등장하여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된다. 원시사회의 석기도구로부터 그후 기계설비, 정보설비와 같은 로동수단들이 개발되어 생산자원으로 리용되고있으며 지식경제시대에 와서는 지식자원이 등장하여 물질적생산을 보장하고있다. 이러한 생산자원들은 생산된 제품의 현물적소재를 이루지는 못하고 다만 제품의 가치구성을 이룰뿐이다.

다음으로 생산자원은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기능한다.

생산자원은 생산을 보장할뿐아니라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기능한다.

생산자원의 량과 질은 생산물의 량과 질을 규정한다. 생산자원이 량적으로 늘어나면 생산물의 량적장성이 이루어지고 그 질이 높아지면 생산물의 량적장성과 질이 높아지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시대의 발전에 따라 생산자원의 구성은 점차 변화된다.

농업경제시대의 주되는 생산자원은 로력자원이었다. 이 시기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농업생산에 위주로 하였던 물질적생산은 사람의 육체적로동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로력자원이 생산자원에서 기본을 이루고 생산물용량에서 로동용량이 압도적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경제는 로동집약형 경제로 특징지어졌다.

공업경제시대에 이르러 생산에 기계가 대대적으로 도입되고 가공공업이 발전하면서 물질자원으로서의 원료, 자재의 대량적인 소비가 동반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생산물의 용량에서 물질자원이 기본을 이루게 되었고 경제는 자원집약형경제로 특징지어졌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와 생산자원구조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지식자원이 생산자원에서 기본을 이루게 되었다.

생산자원으로서의 지식자원은 생산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지식, 생산적유용성이 있는 지식이다. 온갖 지식이 다 생산자원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생산발전과 직접 연결되어있고 일정한 유용성을 가지는것으로 하여 활용되는 지식이 지식자원으로 된다.

생산자원으로서의 지식자원은 인간의 육체로동을 지능로동으로 전화시킬수 있는 지식이다. 인간의 로동이 지식의 활용과정으로, 지능로동으로 되어야 지식이 생산자원으로서의 지식자원으로 된다.

생산자원구조에서 지식자원이 기본을 이루고 물질적생산이 지식의 활용과정으로 되어야 생산물에 지식용량과 과학기술용량이 형성되며 이때 지식은 생산자원으로 전화된다. 즉 지능로동으로 지적제품을 생산하는 조건에서만 지식자원이 독자적인 생산자원으로 될 수 있다.

인간의 로동이 지능로동으로 전화되고 생산물용량에서 지식용량과 과학기술용량이 기본으로 될 때 이러한 경제는 기술집약형경제, 지식밀집형경제로 특징지어진다.

생산자원의 구성변화에는 일정한 합법칙성이 있다.

생산자원의 구성변화의 합법칙성은 무엇보다먼저 자원구성에서 로력자원의 몫이 줄어 들고 물질자원의 몫이 늘어나며 그가운데서도 자연자원에 비하여 인공자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것이다.

농업경제시대에는 생산자원구성에서 로력자원이 기본으로 되어있었다. 원시적인 수렵과 농업, 그후 공장제수공업에서도 로력자원이 가장 주되는 생산자원으로 기능하였으며 로력자수에 의하여 생산발전이 이룩되었다. 이 시기에는 로동의 생산성이 매우 낮기때문에 물질생산물은 주로 산로동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생산과정에 소모되는 물질적인 수단이나 대상이 많지 못하였다. 따라서 물질자원에 비하여 로력자원이 많이 요구되었다.

공업경제시대로 넘어오면서 로동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원료, 자재 등 물질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가공공업이 발전하면서 원료, 자재 등의 수요가 늘어나 생산자원중에서 물질자원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물질자원가운데서도 자연자원에 비하여 인공적인 자원의 몫이 커지는것이 생산자원의 구성변화의 중요한 합법칙성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적인 물질자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생산은 자연자원의 제한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한다. 그것은 오늘 석탄, 원유, 광석, 나무 등 자연자원이 고갈되면서 대용에너키와 대용 및 재생물질자원을 생산리용하는데로 지향하고있는것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생산자원의 구성변화의 합법칙성은 다음으로 생산자원에서 지식자원이 기본으로 된다는것이다.

지식자원은 지식경제시대를 대표하는 생산자원으로 되고있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와 생산의 자원구조에서 지식자원이 기본으로 된것은 여러가지 요인과 관련된다.

생산자원구조에서 지식자원이 기본으로 된것은 우선 현시기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지식의 대대적인 축적이 이루어진것과 관련된다.

지식의 대대적인 축적은 지식이 경제발전의 주되는 자원으로 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지식이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그 발전에서 아무리 큰 역할을 한다고 하여도 지식의 량이 풍부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경제발전의 주되는 자원으로 될수 없다. 과학기술발전에 의하여 인류의 지식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출현하고있다. 현시기 지식의 대대적인 축적이 이룩되게 된것은 인류의 과학기술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다. 지식의 대대적인 축적이 이룩된 현시대의 경제발전은 지식자원을 주되는 자원으로 되게 하였다.

생산자원구조에서 지식자원이 기본으로 된것은 또한 현시기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정보설비가 주되는 노동수단으로 된것과도 관련된다.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정보설비가 주되는 노동수단으로 된것은 지식을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이 마련된것으로 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축적되고 경제발전에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여도 지식을 경제발전에 직접 리용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것을 경제발전의 주되는 자원으로 리용할수 없다.

생산자원구조에서 지식자원이 기본으로 된것은 또한 현시기 지식자원이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새로운 생산물,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수 있는 기본원천으로, 그 원천에서 제한이 없는 자원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효과성은 경제활동에 대한 지출과 결과의 호상관계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로력자원이나 물질자원의 지출의 증대는 생산결과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되지만 그 효과성을 높이는 직접적요인으로서는 되지 못한다. 그것은 로력자원이나 물질자원의 지출증대가 생산의 결과에 산수적으로 작용하는것과 관련된다.

물질자원의 증대는 곧 량적증대이며 그것은 그에 비례하여 경제활동의 결과를 증대시킨다. 물론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에서 로력자원이나 물질자원의 질적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순수한 량적증대만이 있는것은 아니다. 로력자원이나 물질자원의 질적수준을 높이는것은 다름아닌 지식의 활용과정에 의한것이다.

지식자원의 증대는 곧 새로운 지식의 활용 즉 질적으로 높은 지식의 활용을 말하며 그것이 경제활동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그만큼 경제활동의 효과성이 높아진다.

단순한 로력자원의 증대나 물질자원의 증대는 생산물의 량적증대를 가져올수는 있지만 새로운 생산물이나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한다.

로력자원이나 물질자원은 그 원천이 제한되어있다. 로력자원은 로동력재생산에 의하여 재생될수 있지만 인구의 자연증가나 로동적령인구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무제한하게 늘일수 없다.

물질자원도 생산과정에 부단히 소비되어 적어진다. 물질자원은 한번 소비되면 생산된 제품에 그 가치를 이전시키거나 그의 물질적실체로 되어 없어지기때문에 자연계에 있는 자원으로 계속 보충하여야 한다. 자연계에 있는 물질자원은 매개 나라가 가지고있는 자연 조건에 의하여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자연자원에 의거하던 경제적시대는 필연적으로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

지식자원은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여 새것을 창조하게 하는 자원 다시말하여 창조의 원천으로 되는 자원이며 또한 소비되는것이 아니라 활용되어 증식되는 자원, 반복하여 쓸수 있는 자원으로써 그 원천에서 한계가 없으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의 인식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무한히 늘어난다.

생산자원구조에서 지식자원이 기본으로 된것은 또한 인간로동이 지능로동으로 전화 된것과 관련된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로동은 육체로동으로부터 점차 지능로동으로 전화되었다. 육체로동은 육체적능력의 소비과정이지만 지능로동은 지적능력의 활용과정이다.

지식경제시대에는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사회적로동의 기본형태가 지능로동으로 된다. 지적능력이 활용되는 지능로동에서는 생산발전에 작용하는 지식의 역할이 전면적으로 실현되어 높은 생산적효과를 나타낸다.

지식경제시대의 로동은 더욱더 지능화, 기술화된다. 로동의 지능화, 기술화는 지능로동의 구체적발현형태이다. 로동과정이 사람의 지적능력의 활용과정으로 전화되는것을 로동의 지능화라고 하며 로동과정이 기술기능에 의한 조작과정으로 전화되는것을 로동의 기술화라고 한다.

경제발전에서 지식의 역할은 현실적으로는 지능로동의 역할에 의하여 실현된다. 지식은 재부를 창조하고 가치를 창조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지능로동에 의하여 재부도 가치도 창조되게 된다. 바로 지능로동에 의하여 지식자원은 로동과정에 활용됨으로써 지식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처럼 생산자원이 로력자원에서부터 물질자원에서부터 점차 지식자원을 기본으로 하는것이 생산자원의 구성변화의 합법칙성이다.

오늘 기업체의 경쟁력과 경영활동의 성과는 기업체의 로력자수나 물질자원의 소모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체의 지식화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다시말하여 기업체가 지식자원에 얼마나 의거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력도 해당 나라가 가지고있는 지식자원에 의하여 결정되고있다.

우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식과 과학기술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